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 국어영역 [B형] 분석

### 1. 출제 경향

#### ① 총평

9월 모의평가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할 때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9월 모의평가에서도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전 영역에 걸쳐 EBS 연계 교재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화법, 작문, 문법 등은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문항의 개념·원리와 문항의 아이디어, 〈보기〉의 자료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어 출제되었다. 독서의 경우 모두 5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이 중 사회 지문과 독서 이론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이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물론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EBS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이 지문 또는 〈보기〉 자료에 활용되어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문학은 모두 5개의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모든 영역의 지문들이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작품들로 구성되어 연계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으로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어 쉬운 수능의 기초를 유지하였으나, 문학에서 출제된 ‘국순전’, ‘광장’ 등의 지문은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념의 구체적 사례 적용이나 외적 증거에 의한 작품 감상 등 몇 개 문항의 경우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었다.

#### \* 출제경향 특징 3가지

하나. 전반적으로 익숙한 문제 유형들을 중심으로 쉽게 출제되었으나, 일부 문항의 경우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하는 문제들도 있었다.

둘.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개념·원리, 문항의 아이디어, 자료 등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지문의 핵심 제재와 논지 등도 지문과 〈보기〉 등에 활용되어 다양한 형태로 연계되었다.

셋. 문학 작품의 경우 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이 주로 출제되었으며,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들을 잘 담고 있는 작품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 ② 국어 B형 (세부 출제 경향)

##### 1) 화법

토론, 협상, 대화 등 다양한 화법의 유형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토론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1번)와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 및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2번)가

출제되었으며, 토론과 연계하여 협상의 과정에 대해 묻은 문제(3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화법 유형을 연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특이했다. 토론과 협상의 화법 유형은 EBS 연계 교재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어졌고, 사회자의 역할, 참여자의 발언 내용 및 말하기 방식 등 출제된 문항의 내용 요소들도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진 문항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협상 참여자의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3번)는 EBS 연계 교재의 문항 아이디어와 자료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 문제였다.

친구 간의 대화를 지문으로 구성한 대화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4번)와 주어진 대화 원리에 따라 '조언하는 말하기'의 내용 구성하기(5번)가 출제되어 6월 모의 평가의 문제 유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화법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서 다른 지문이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문항은 없었기 때문에 체감 연계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나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과 출제 요소가 EBS 연계 교재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본다.

## 2) 작문

설득을 위한 글쓰기인 논설문과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등 교육과정에 포함된 다양한 작문 유형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논설문에서는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수정·보완하는 문항(6번)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개요의 일부 내용을 작성하는 문항(7번)이 출제되었다. 6번 문항의 경우 자료의 활용과 개요의 수정·보완을 통합하여 구성한 문항이었는데,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개념·원리가 그대로 활용되어 체감 연계도가 높은 편이었다. 요약하기 문항(8번)은 주어진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주어진 <보기>의 글을 적절하게 요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항 역시 EBS 연계 교재의 문항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한 문제였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학습한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문제였다. '자기 성찰의 글쓰기'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글쓰기 방법을 파악하는 문항(9번)과 고쳐쓰기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항(10번)이 출제되었는데, 두 문항 모두 EBS 연계 교재의 문항에 담긴 개념·원리를 그대로 활용한 문제였다. 작문은 전반적으로 쉽고 익숙한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나 일부 문항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 유형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 3) 문법

문법에서는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 탐구(11번), 표준 발음의 적용(12번), 부정확한 문장의 수정(13번), 의문문의 종류와 기능 파악(14번),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안 탐구(15번), 중세 국어의 표기 이해(16번) 등이 출제되었다. 11번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자료의 핵심 논지가 활용되었으며, 12, 13, 14, 15번 문항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의 개념·원리가 그대로 활용되었다. 문법은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연상시키는 탐구형 문항이 많았으며, 발문과 선지에 노출된 용어의 개념이 문제 해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6번은 현대 국어 뿐 아니라 중세 국어에 대한 문법 지식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4) 독서

독서는 인문, 예술, 사회, 과학, 독서 등 5개 지문이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인문, 예술, 과학 지문이 EBS 연계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물론 논지 전개 방식이나 글의 구성 방식 등

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의 핵심 제재나 문항의 개념·원리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았다. 주희와 정약용의 ‘명명덕’과 ‘친민’을 다룬 인문 지문은 주희와 왕양명의 ‘친민’에 대해 설명한 EBS 연계 교재(수능 특강)의 논지와 매우 유사했다. 주희와 왕양명 대신 주희와 정약용을 비교했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19번 문항의 <보기>에서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었던 왕양명의 견해를 제시하여 체감 연계도가 매우 높은 문항이었다.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중심으로 20세기 미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예술 지문도 EBS 연계 교재(인터넷 수능)의 지문과 연계된 것이다. 전반적인 논지의 흐름이나 글의 구성 등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으나 EBS 교재를 통해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잘 이해한 수험생이라면 예술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쉬었을 것이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다룬 과학 지문은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EBS 연계 교재(수능완성)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어 체감 연계도가 높았을 것이다.

한편, 사회 지문과 독서 지문은 EBS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었다. 사회 지문은 먼저 기업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의 사례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법적 방법인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한 글로, 크게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세밀한 정보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아서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문항이었다. ‘독서’ 지문의 경우에는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를 소개한 글로 ‘독서 전 활동’의 내용을 문제로 구성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독서는 EBS 연계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지문의 일부 내용을 확대·심화하거나, 인접한 정보를 추가하여 지문을 재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EBS 교재의 지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가운데 핵심 제재와 관련된 정보들을 추가하여 지문에 대한 이해를 보충·심화해가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서 문항의 경우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문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 지문에서 확인한 개념과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등 다양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대부분 EBS 연계 교재에서 많이 다루어진 유형의 문제들이었다. 문제 유형들 중에서 특히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서 구체적인 여러 사례에 적용하는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 5) 문학

문학은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희곡 등 5개의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여섯 작품 중 유치환의 <생명의 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작품은 모두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이어서 수험생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작품들이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은 대부분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로 문학사적 위상이 뚜렷한 작가의 대표작들이었다. 특히 고전소설에 출제된 임춘의 <국순전>은 그동안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 ‘가전(假傳)’이 시험에 출제된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하다. 고전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소설 갈래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을 장르적인 특징과 함께 다루었기 때문이다. 현대소설에 출제된 최인훈의 <광장>도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했던 기존의 지문들과는 달리 인물의 심리 묘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장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했다. 별다른 사건의 진행이나 장면의 변화 없이 한 인물의 심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각들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어서 수험생들이 지문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현대시에 출제된 <생명의 서>, <농무>와 고전시가에 출제된 <매화사>, 희곡에 출제된 <원고지> 등

은 다소 까다로운 문제들(33, 40, 43, 45번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작품이어서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되었던 작품들이어서 평소에 EBS 연계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 ③ 공통문항

독서에서는 유일하게 ‘공동 소송·집단 소송·단체 소송’이라는 사회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되었다. 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 과학 지문이 공통으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예술 지문이 공통으로 출제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향후 독서에서 공통 지문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 생각된다. 문학은 고전시가 안민영의 <매화사>와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가 출제되었다. 이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 평가에서 고전시가와 시나리오가 공통 지문,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고전시가와 수필이 공통으로 출제된 것과 경향을 같이 하고 있다. 고전시가 안민영의 <매화사>와 희곡 이근삼의 <원고지>는 EBS 교재에서 A형과 B형에 공통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화법의 경우 4, 5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일상적인 대화로 지문을 구성하여 화법의 특별한 유형에 대한 인지적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문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들도 ‘공감적 듣기’, ‘평가하며 듣기’, ‘의사소통의 목적과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기’ 등 화법 I의 교육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작문의 경우 9, 10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작문의 특정 유형과 관련한 심화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작문 상황을 제시하고 ‘글쓰기 방법 파악하기’,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등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유형으로 쉽게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법의 경우 14, 15번이 공통 문항이었다. ‘의문문의 종류와 기능 파악하기’와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이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14번과 15번의 경우 EBS 연계 교재의 A형과 B형에서 모두 다루어진 내용 가운데 연계되어 출제되었다.

## 2. 난이도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2013학년도 수능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와 비교	2013학년도 수능과 비교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와 비교
국어B형	다소 어려움	다소 어려움	비슷함

전체적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고 2013학년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운 시험이었다. 화법, 작문, 문법은 대체로 쉬운 편이었으나, 문법의 일부 문제는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독서와 문학의 경우 일부 까다로운 문항도 있었지만 대체로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 독서 지문의 경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으나 몇 개의 문항은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었다. 문학의 경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지문이 낯설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수험생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독서 지문과 문학 작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어서, EBS 연계 교재로 체계적인 학습

을 한 수험생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① 교과별 세부 난이도

화법, 작문, 문법은 대체로 쉬운 편이었고 문제 유형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다만 문법의 일부 문제는 다소 어려운 편이었다. 문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제된 문제가 많아서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답을 찾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11번과 12번과 같은 탐구형 문제나 사례 적용 문제 등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뿐 아니라 다소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화법과 작문은 대체로 평범하고 쉬운 편이었고 전문적인 용어들의 노출도 크게 많지 않은 편이었다. 특히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다루었던 문제 유형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서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협상의 ‘교섭 범위’를 다룬 3번 문항과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보기〉를 요약하도록 한 8번 문항은 수험생들에게 다소 낯선 문항이었으나 EBS 연계 교재에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학습한 학생들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서의 경우 인문, 예술, 과학 지문은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지문에서 다루었던 개념과 원리가 그대로 반영된 지문이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출제된 지문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사회 지문은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은 지문으로 정보량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크게 어려운 개념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지문 이해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독서 지문 또한 대체로 무난한 편이었다. 하지만 23, 27, 29번 등의 문항은 지문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로 다소 어려웠고, 17, 21, 25, 27, 28번 등의 문항은 지문의 세부 정보를 상당히 꼼꼼하게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다.

문학의 경우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 EBS 교재와 연계되어 출제되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만한 지문은 없었다. 다만 현대소설의 경우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장면과 달리 주인공의 관념적인 의식이 길게 서술된 장면이 제시되어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임춘의 〈국순전〉이 출제되었는데, ‘가전(假傳)’이라는 갈래 양식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36, 40, 43, 45번 문항은 외적 준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였는데, 다른 문항들에 비해 대체로 어려운 편이었다.

### ② 고난도 문제

- 12번 -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문항이다. 각 용례에 대한 정확한 발음을 바탕으로 앞에서 학습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 45번 - 〈보기〉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문항이다. 서사극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이근삼 희곡’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이라면 〈보기〉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것을 다시 작품에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 ③ 신유형 문제

- 3번 - 협상이라는 담화 유형을 토론과 연결하여 출제하였다. 두 개의 담화 유형을 서로

연계하여 문항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다시 시도된 새로운 유형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 30번 - ‘읽기 전에 알고 싶은 점’을 미리 정리하고 이것을 주어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이다. 독서 지문을 통해 독서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로 글을 읽는 과정 뿐 아니라 ‘읽기 전’과 ‘읽은 후’의 활동을 강조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 3. EBS 교재와의 연계성 분석

#### ① 연계표

문항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	쪽수	문항번호(내용요소)
3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4쪽	21번
6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56~157쪽	7번
7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26~27쪽	45번
8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206쪽	6번
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06쪽	1-2번
10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A형 실전편	106쪽	1-2번
11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35쪽	15번
12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36쪽	61번
13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42쪽	76번
14	인터넷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24, 132쪽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93쪽	2번
	인터넷 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30쪽	
15	인터넷수능 국어 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형	131-135쪽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39쪽	69번
16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47쪽	90번
17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166-167쪽	
18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166-167쪽	
19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166-167쪽	
22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103-105쪽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23	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B형	103-105쪽	
28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91-92쪽	
29	수능완성 국어영역 국어 B형 실전편	91-92쪽	
31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7번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7번
32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7번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7번
33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A형	114쪽	227번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14쪽	227번
34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00-102쪽	
35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00-102쪽	
36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00-102쪽	
38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257-259쪽	
40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257-259쪽	
41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26-128쪽	
42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26-128쪽	
43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26-128쪽	
44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184-187쪽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92-194쪽	
45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A형	184-187쪽	
	인터넷수능 국어영역 문학 B형	192-194쪽	

## ② 체감 연계도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등 전 영역에 걸쳐 EBS 교재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되었다. 독서의 경우 다섯 지문 중 세 지문이 연계되었고, 문학의 경우에도 총 여섯 작품 중 다섯 작품이 연계되어 연계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지문이나 문항이 그대로 연계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핵심 제재의 논지 활용, 문항 아이디어의 활용, 개념 원리의 활용, 인접 정보의 활용 등 일정한 변형을 거쳐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연계도는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출제 요소와 문항의 개념과 원리, 문항의 아이디어 등에서 유사한 부분이 많아 EBS 연계 교재를 꾸준히 학습해 온 학생이라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 ③ 연계유형별 세부 분석

### (1) 문항의 개념·원리 및 아이디어 활용

- 대표 문항 : 6, 7, 8, 9, 10, 12, 13, 14, 15, 31번

문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계 문항은 이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BS 연계 교재에 수록된 문항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문항의 형태와 출제 요소가 그대로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 (2) 지문의 활용

- 대표 문항 : 16, 32, 33, 34, 35, 36, 38, 40, 41, 42, 43, 44, 45번

지문의 활용은 EBS 연계 교재에서 사용되었던 지문 또는 작품이 출제 문항에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되어 활용된 것이다. 대부분 문학 문항에서 활용되었다. 운문 문학은 작품이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산문의 경우 장면의 이동으로 인한 변형을 통해 지문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3) 핵심 제재 및 자료의 활용

- 대표 문항 : 3, 11, 17, 18, 19, 22, 23, 28, 29번

EBS 연계 교재의 지문 또는 <보기> 자료에서 다루어진 핵심 제재와 논지를 활용한 경우이다. EBS 연계 교재에서 다루어진 핵심 제재와 논지를 활용하되 여기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4. 대표 연계 문항

- 3번 :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할 때, 협상 참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교섭 범위’를 파악하는 문제로 270제 14쪽의 21번 문제의 핵심 개념과 자료가 거의 그대로 활용되었다.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3번 문항	EBS N제 국어영역 국어 270제 B형 14쪽 21번
<p>3. 위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협상을 한다고 할 때, &lt;보기 1&gt;의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lt;보기 2&gt;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p> <div data-bbox="296 1330 775 1603">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 1&gt;</p> <p>협상의 당사자들은 서로의 교섭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때 교섭 범위란 협상 당사자 자신의 목표점에서 최종 양보점까지의 영역을 의미한다.</p> </div> <div data-bbox="296 1626 775 1886"> <p style="text-align: center;">&lt;보기 2&gt;</p> <p>ㄱ.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한 음악으로 음악 방송을 편성한다.</p> <p>ㄴ. 학급별로 구성원의 의견에 따라 반별 음악 방송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p> <p>ㄷ. 음악 방송을 듣기 싫은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공부한다.</p> <p>ㄹ.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내 음악 방송의 시간을 연장한다.</p> </div> <div data-bbox="296 1904 686 1957"> <p>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p> </div>	<p><b>021</b></p> <p>&lt;보기&gt;는 위 협상의 교섭 영역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div data-bbox="826 1317 1225 1706">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p> </div> <p>협상은 서로 다른 목표점을 지닌 당사자들이 상호 교섭하는 행위이다. 협상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양보점을 찾아야 한다. 협상 당사자들은 서로의 최종 양보점 사이에서 타협점을 맞게 되는데, 이를 교섭 영역이라고 한다. 위 협상의 교섭 영역은 다음과 같다.</p> <p>① ㉠: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계획대로 공장을 마을로 이전하는 것이다.</p> <p>② ㉡: 시에서 공장 이전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주민들의 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p> <p>③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게고하는 것이다.</p> <p>④ ㉣: 주민들이 공장 이전 계획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p> <p>⑤ ㉤: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이다.</p>



--	--

- 2) 8번 : 주어진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보기>를 요약하는 문제로 인터넷 수능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206쪽의 6번 문항의 아이디어 및 문항의 개념·원리가 그대로 활용되었다.

<p>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8번 문항</p>	<p>인터넷 수능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amp;독서와 문법 B형 206쪽 6번</p>
<p>8. &lt;조건&gt;을 모두 반영하여 &lt;보기&gt;를 요약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data-bbox="300 817 774 1243">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번지점프는 탄력성이 있는 줄에 몸을 고정하고, 50m 정도의 높이에서 수면이나 지면을 향해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번지점프를 하는 사람들은 낙하할 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번지점프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뛰어내리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p> <p>번지점프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의 번지점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기 위한 전통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여하는 소년들은 등나무 줄기에 몸을 묶어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발을 향해 뛰어내린다. 자칫하면 땅에 부딪힐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진짜 어른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p> </div> <div data-bbox="300 1265 774 1377"> <p style="text-align: center;">&lt;조 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한다.</li> <li>○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하지 않는다.</li> <li>○ 반복된 내용이나 부가적인 내용은 압축한다.</li> </u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긴장감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이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유래하였다.</li> <li>바누아투 공화국에서는 높은 곳에서의 점프를 통해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전통 의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번지점프의 기원이다.</li> <li>번지점프는 소년들의 용맹성을 시험하는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번지점프는 어린 소년들이 수행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다.</li> <li>번지점프는 밧줄을 몸에 고정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스포츠이다. 이것은 바누아투 공화국의 전통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발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은 매우 용맹한 전사와 같다.</li> <li>번지점프는 높은 곳에서 점프하며 그 순간의 긴장과 자유를 즐기는 스포츠이다.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눈앞의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번지점프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이다.</li> </ol>	<p>06 다음 원문을 선생님의 조건에 따라 요약했다고 할 때, 그 결과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data-bbox="845 1008 1340 1355"> <p>[원문]</p> <p>산업 국가 노동력의 75% 이상이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 자동 기계, 컴퓨터는 이런 작업들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의 5% 정도가 향후 10년 이내에 불가피하게 다가올 새로운 기계 문화, 대량 실업으로의 이행을 시작했다. 노벨상 수상자인 경제학자 레온티에프는 이러한 이행의 중요성을 오히려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보다 정교한 컴퓨터의 도입으로 아직 농경 시대에 있어서 밭의 역할이 트랙터의 도입에 의해서 감소되고 제거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p> <p>다국적 기업들은 증가하는 세계적 경쟁과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 노동자로부터 기계 노동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건비 증대를 스태그네이션과 국제 경쟁력 상실의 원인으로 비난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기업들은 노동력을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로 서둘러 대체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8년간 인건비는 자본 비용에 비해 3배나 더 증가했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를 위해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p> <p>[선생님의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심 문장이나 핵심 개념을 잘 찾아야 해.</li> <li>• 반복적인 내용은 압축하는 것이 좋아.</li> <li>• 예시나 사례 같은 부분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어.</li> <li>•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을 추가해서는 안 돼.</li> </ul> </div>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화된 국가들은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려 하고 있다.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극적인 향상이 노동 시간의 감소와 임금의 인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li> <li>기계 문명의 발달은 노동자들의 단순 반복 작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간 역할을 감소시켜 대량 실업을 가져올 수 있다. 세계화된 경쟁 속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인간 노동자를 기계로 대체하려는 흐름을 더욱 빠르게 하고 있다.</li> <li>중요한 생산 요소로서의 인간 역할이 최근 감소되고 있다. 자동 기계나 컴퓨터의 등장으로 단순 작업은 더 이상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인간은 누구나 일하고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노동에 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li> <li>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인간 노동으로부터 기계 노동으로의 이행을 서두르고 있다. 인간 노동을 기계 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용 절감과 수입 증대를 위해 인간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li> <li>밭의 역할을 트랙터가 대신한 것처럼 최근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자동 기계나 컴퓨터에 의해 점차 그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여 수입을 증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비하는 것이 적절하다.</li> </ol>

- 3) 19번 : ‘친민’의 해석과 관련된 주희와 왕양명의 견해 차이를 설명한 수능특강 166쪽의 내용이 일부 변형되어 지문이 구성되었고, 연계 교재의 핵심 내용은 19번 문항의 <보기> 자료에 재활용되었다.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9번 문항	수능특강 국어영역 국어 B형 166쪽 지문
<p>19. 윗글과 &lt;보기&gt;를 근거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lt;보 기&gt;</p> <p>왕양명은 당시에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고본 『대학』에 따라 ‘친민’으로 고쳤다. 그는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가르침에 치중한 ‘신’보다는 ‘친’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점을 지적하면서,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다.</p> </div> <p>① 왕양명과 정약용은 ‘명덕’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였다.</p> <p>② 정약용은 왕양명의 ‘명덕’ 해석이 주희와 다르다고 보았다.</p> <p>③ 왕양명의 ‘친민’ 해석은 주희가 아닌 정약용의 해석과 일치한다.</p> <p>④ 왕양명과 정약용은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았다.</p> <p>⑤ 왕양명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친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한정할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p>	<p>㉠ 먼저 ㉠신민(新民)의 경우를 보자. 이는 『대학』 공부의 목적이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기준’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가에 대해 새롭게 판정하려면 새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주는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희는 공자 같은 성인의 말씀과 행적이 그 기준이라고 했다. 따라서 성인의 말씀과 행적이 실려 있는 경전의 학습을 중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나아가 그는 삶의 주안점을 세상 경영(經世)보다는 도리(道理)의 구명에 두었다. 즉 경전은 그에게 있어 삶의 목표를 제시하는 지표였던 것이다.</p> <p>㉡ 이에 반해 양명은 경전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삼았다. 주희와는 반대되는 방향에서 경전과 ‘나’의 관계를 설정한 셈이었다. 그가 신민(新民)을 ㉡친민(親民)으로 환원시킨 것도 당연한 처사였다. 백성을 퍼붓어 아끼듯 사랑하는 데 경전의 학습이 꼭 선행될 이유는 없다고 보았다. 그보다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를 요청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공부’가 요구되는 데, 그 공부의 일환으로 경전이 필요했던 것이다.</p>